

바벨탑의 現代的 意味

— 理性史的 側面에서 —

金 權 昊 *

◇ 目 次 ◇

- I. 序 言 (啓蒙主義와 바벨탑)
- II. 啓蒙主義란 무엇인가
 - A. 그 源泉
 - B. 그 影響
 - a) 合理主義
 - b) 自然法 思想
- III. 人間 구원으로서의 社會改革
- IV. 結 語

序 言

I. 啓蒙主義와 바벨탑

창세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驚異와 슬픔을 자아낸다. 天地創造의 웅대한 記事와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宇宙, 人間의 타락, 樂園에서의 추방, 대 洪水事件 등은 아담 후예인 우리들에게 황홀함과 驚異로움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事件들이다.

그러나, 人間의 知識이 하나님을 無視하고 人間中心(Humanitarianism)으로 變하였을 때 빚어진 事件이 有名한 바벨탑 事件이었다.¹⁾ 그들이 탑을 쌓은 것 그 自體가 잘못이 아니라, 이 工事로 因한 그들의 目的이 잘못이었다. 人間은 自己들의 이쁨을 위하여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쁨을 높이기 위하여 살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쁨을 높이고자 하였으니 그것이 실제적인 無神論 思想이었다.²⁾

이 事件은 人間의 知性和 理性의 發顯은 잘못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저버린 知性和 理性

* 助教授

- 1) 박윤선, 성경주석, 12판 서울, 1980
- 2) Ibid ,

은 自身들의 文化의 파괴를 自招하였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招來한 것이었다.

現世紀는 科學의 靑壯한 發達로 生活의 便利함과 文化의 혜택을 어느 世紀에 못지 않게 향유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人類의 危機感은³⁾ 最高調에 달하였고 理性의 확장은 自然과의 調和⁴⁾ 를 깨트리게 되어 20C 사람들은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다.

바벨탑은 확실히 人間知識의 產物이었으나 무너졌고, 무너진 바벨탑은 人間의 知識으로 重修되지 않았으며 새로 시도하는 바벨탑도 그 처음과 다를 바가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⁵⁾

筆者는 小論을 통하여 現今의 文化의 뿌리를 理性史의 맥락에서 찾아 봄으로 그 建立된 基礎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啓蒙主義란 무엇인가

今世紀는 소위 啓蒙主義의 선봉에 서서 啓蒙과 그 啓蒙의 完成任務를 마쳤던 啓蒙主義者들이 逝去한지 200주년이다. 그들의 名聲은 西歐文明의 歷史속에서 새로운 時代의 가장 특출한 先知者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時代는 啓蒙主義時代(Enlightenment) 혹은 理性의 時代(Age of Reason)라 하여 18C에 局限⁶⁾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 理性의 時代에 대두하였던 思想들이 지속적으로 스며들어 오늘날의 文化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뿌리의 나무에서는 쓴 과일을 맺게 되어 Europe文化가 決定的으로 精神的인 革命(Spiritual revolution)을 겪었던 것이 이 啓蒙主義 동안이었다. 啓蒙主義 哲學者들이나⁷⁾ 지도적 學者들은 聖經的인 基督教(Biblical Christianity)에 등을 돌리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from God)” “인간의 自律(Autonomy of Man)”⁸⁾을 외쳤다.

그리하여, 啓蒙主義의 많은 啓學者들은 自律을 神의 意志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啓蒙主義가 모든 革命가운데 가장 위대한 革命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他律의 힘-비록 그 권위가 神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⁹⁾-은 우리 자신의 善의 本性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항거할 수 있는 潛在勢力의 革命이기 때문이다.

- 3) 인류는 적어도 계몽주의아래 흔히 전통문화를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전과 진보만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의 공해의 확산과 전쟁의 위협과 자원고갈 그리고 이에 따르는 생존의 위협과 인간 소외의 현상 등이다. (이 규호,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결단*, p. 66)
- 4) 인간은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명(창. 2:15)을 받았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라”(창 1:28)는 말씀으로 기독교는 현대적 문화의 여러 공해의 주요 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 5) 末世를 운위함은 비단 기독교의 독점물만 아니다.
- 6) 1700여년에 시작하여 1789년 프랑스혁명과 함께 끝난다고 봄.
- 7) 계몽주의 지도자들은 주로 중간계층식자들(middle class intellectuals)이었는데 이들은 다양한 전문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작가들, 언론인, 법조계, 과학자, 신학자 등이었다. 이들은 보통 계몽주의 철학자(Enlightenment philosophy)라 부른다.
- 8) Kant는 개개인의 모든 사람의 自律이야말로 계몽주의의 기본적 원리라고 하였다.
- 9) 모든 종교적 권위도 他律이 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우리 자신의 理性的 구조를 부정했다.

그렇게 하므로, 소위 post-Christian Age를 개막하게 되었고 言約의 하나님이 排除된 人間 理性의 結果는 오늘날 우리 社會에서 새로운 바벨탑을 쌓게 되었고 혼란과 상호 不理解的 고통을 겪게 되었다.

A. 그 源泉

理性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18C의 啓蒙主義는 그 時代에 제한된 것은 아니다. 훨씬 以前에 있었던 Greece, Roma의 無神論, 唯物論, 哲學¹⁰⁾이 이 時代에 다시 復興하였으며 그 前世紀에 있었던 理性의 억압¹¹⁾으로 인한 반발과 17C의 科學精神의 대두등을 말할 수 있다.

16C에 焚刑당한 Servetus의 죄목은 유태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라고 성서에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가 비참한 불모의 땅이라고 써놓은 Greece 地理學者의 說을 그가 믿었다는 점이다.

Hippokrates는 科學的인 탐구에 의하여 의학과 질병을 연구하였지만 中世人들은 다시 야만의 時代로, 원시적 관념으로 되돌아 갔었다.

즉 육체의 병고는 超自然的인 原因으로, 악마의 惡意로, 神의 분노의 탓으로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의사는 무슨 요술쟁이나 不信仰의 혐의를 받게되었으며 신체의 해부는 금지되었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된 聖徒의 遺骨이 대대적으로 매매되었고 그로 인하여 教會의 수입은 막대하였었다.

中世 基督教會가 채택한 무시무시한 탄압정책과 그 결과는 마침내 理性으로 하여금 이 문제와 苦鬪하게 하였으며, 知的 自由의 논거를 발견하게 하였다.¹²⁾

그러나 Sophist들은 무엇이든지 理性에 의하여 檢定하려고 하였다.

B. C 5C 후반은 啓蒙의 시대라 불러도 좋은 것이다.¹³⁾

17C는 現代科學의 시초를 보았던 시기이며 하나의 時代를 특징짓는 시기였다. 17C 과학자들은 현대 과학시대를 開幕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 10) B. C 5C중엽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한 Sophist들은 항상 여행하고 다니면서 Greece 각처에서 청년들에게 공민생활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자기 理性을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J. B. Bury, *사상의 자유와 역사*, 양명우역, 서울, 박영사, 1978 p. 22) 초기 그들 철학자들은 대개 唯物論者들로서 그중 Herakleitos와 Demokritos는 유명하다. 그들은 순수한 사색에 힘쓰므로서 우주를 새로운 견지에서 고찰하도록 理性을 훈련시켰으며 특히 Demokritos의 원자론적 우주론은 17C 다시 부활하였다. (*Ibid*) Greece, Roma 人의 정신은 이성의 지배를 재건하는데 이바지 하였던 것이다. (*Ibid*)
- 11) Constantine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중대한 결정으로 理性이 속박되고 사상이 노예화되고 따라서 지식의 진보가 없었던 1000여년의 時代가 시작되었다. (*Ibid.*, p. 44) 올바른 신앙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허위, 기만) 가리지 않는 것이 분명한, 합당한, 아니 차라리 불가피한 일로 생각되었다.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기적이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다. 진실의 공평 무사한 인식이라는 것은 17C 들어서서 비로소 지배적으로 되기 시작한 것이다.
- 12) *Ibid.*, p. 43.
- 13) *Ibid.*, p. 22.

왜냐하면, 그들은 研究의 새로운 方法을 개척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이전의 과학자들의 自然에 대한 理論을 무시하고 그들 自力으로 조사하고 실험하고 연구하여 해결하였다. 그들은 관찰하고 실험하고 무게를 달고 길이를 측정하여 자연을 설명하기 위하여 法則을 公式化하고 그것을 하나의 발견으로 삼았다.

이 새로운 科學的 方法(Scientific Method)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새로 발견된 法則들(New laws)은 宇宙의 作用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거대한 진전의 발걸음을 모든 分野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17C 과학은 그 前時代와는 그 방법에서와 그 성취에서 뿐만 아니라 그 目的에서도 달랐다. 초기 科學者들 즉 Greece와 Roma Middle Age시대 科學者들은 自然을 연구하였으나 自然을 이해하기를 원하였고 그들의 과학적 지식의 追求가 근원적으로 知的 好奇心(Intellectual Curiosity)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식을 적용시키는데 관하여서는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기계를 만들만한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계도 만들지 않았으며 기술도 개발하지 않았다.

한편 17C에 과학자들은 단지 자연을 理解한데만 연구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즉 그들은 應用科學으로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Francis Bacon은 新科學의 辯護人으로서 “知識은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고 말하여 自然의 動機나 理由를 알면 자연의 힘을 이용하고 그것을 조종하고 심지어는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1645년 英國의 王立學會(The Royal Society of London for Improving of Natural Knowledge)와 1666년 프랑스의 科學院(Academie des Sciences)의 그 창립자들이나 회원들은 과학이 實用될 수 있어야 하며, 또 실용을 위하여 계획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¹⁴⁾

Francis Bacon은 이런 王立學會의 창립자들을 鼓舞시키면서 과학은 끊임없이 人類에 봉사하도록 계획된 활동으로서 묘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침은 Robert Boyle과 같은 宗教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많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哲學家, 詩人들 까지도 이 學會에 회원이 되고자 하여 John Dryden과 같은 詩人也 회원이 되기를 원하였다. 왜냐하면, 과학은 생기에 넘치고 세계를 再創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世紀에서는 언급한 바 초기 과학자들과는 科學觀과 自然觀에 있어서 상이하게 되었다. 勿論, 순수과학이나 응용과학에서 本質적으로 나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들을 통하여 주어진 명령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자연을 통치하도록 하였으며

14) J. Bronowski and B. Mazlish, 서양의 지적(知的) 전통, 차하순역, 서울 흥성사, 1980, p. 234.

그렇게 하여 造物主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였다.

초기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찬양은 그들 과학적 업무의 목표라고 선언하였으며, 17C는 역시 Christian Century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世紀에서 知的인 지도자들 가운데서 啓示된 기독교로부터 서서히지만 돌아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머지않아 학문과 文化를 세속적 성격으로 유도할 추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아직도 성경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과학적 철학적 著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God's Revelation)의 전부에 관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시하였고 비판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인간의 문화적 추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웠던 規律(Norms)과 目的에 아무런 구애도 없이 세속적 전진 뿐이었다.

B. 그 영향

만약 17C나 18C의 European과학자들이 그들의 업적을 유용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으로 과학정신이 남아 있게 했더라면 새로운 과학자들은 진정한 평화와 우리 사회의 안락한 번영에 봉사했을 것이다.

18C의 知的인 지도자들, 즉 啓蒙主義 啓學者들은 많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改革을 변론하기 시작하였고 이 社會改革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긴급히 必要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평등, 억압, 불의에 대한 그들의 사회개혁이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規範에 복종하여 개혁의 업적을 이루었더라면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숨김없는 축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계시로부터 逸脫한 학문과 문화적 행위의 逸脫은 17C에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으로 18C에는 그것이 한 규범으로 되었다. 그 시대 사람은 이미 자신을 禮拜的인 被造物(liturgical Creature)로 고백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종(Office-bearer of God)으로 생각지 않고 자신의 神性(divinity)을 선언하였다. 창조자를 찬양하고 대신 啓蒙主義는 피조물을 위하여 그 찬양을 남겨두었다. 그것은 인간의 自力으로 우주의 비밀을 폭로한 인간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왕국(God's Kingdom)의 도래를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획득된 보물을 사용하여 인간의 王國(Kingdom of Man) 건설의 目的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現今의 바벨탑의 건립의 기초였다.

王立學會의 회원이었으며 회장직도 지냈던 Newton은 F. Bacon의 계승자로서 그의 萬有引力 법칙을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끊임없는 확장에도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의 모든 사건은 우주의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수학적 원리와 같이 정확히 공식화 될 수 있었으며, 이 법칙의 발견은 과학의 주요한 법칙임과 동시에 인간의 의무는 자연법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었다. 비로서 중세적인 概念은 지나고 세계의 자동적 사건의 진행속에서 인간은 살고 있게 되었다.

Newton은 비록 神의 사상을 배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별들이 그 행로를 따라 운행

하고 태양을 정지시킨 명을 내리는 그의 능력¹⁵⁾을 빼앗고 말았다.

宇宙는人間이 어찌할 수 없는 固有法(Inflexible law)에 의하여 통치되는 기계이며, 자연의 질서는 절대적으로 일정한 것이므로 神의 간섭(divine interference)의 어떤 형태나 기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었다.¹⁶⁾ 이러한 과학적 정신은 聖經的 基督教을 부인하였고 合理主義를 대두케 하였으며 이 合理主義는 理性을 절대근거하여 기독교 계시 및 초자연적 기적의 사실을 부정케 하였다.¹⁷⁾

17C, 18C의 철학자들이 이 啓示宗教(Revealed Religion)의 거부는 단순히 기성교회에 대한 반대만을 초래한 결과가 아니었으며, 죄로 인한 타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超自然的인 救贖(Supernatural Redemption)은 인간의 理性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 人本主義철학자들은 기독교를 미신적인 종교라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고유한 理性으로 啓蒙된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의 합리주의는 성경속에 나타난 그들의 발견한 모순, 당착 및 불합리한 것은 모두 理性으로 거부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합리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勿論 전부가 無神論者가 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적 世界觀이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하기도 하고, 정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새로운 종교에 집착하게 되었는데 바로 理神論者들로 되었다.

이러한 과학사상은 종교사상을 대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理神論의 토대가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原罪를 이 지상에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대신 인간은 제도와 관습을 개혁함으로써 자신의 現世적 존재를 개선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며 또 시도해야만 한다고 하였다.¹⁸⁾

지옥의 두려움도 또한 배재 되었다. 죽음의 두려움은 실제로는 지옥의 두려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제거되었다. 지옥의 상징적 의미가 사라졌다.

그 결과 그 곳과 반대된 것도 배재되었다. 하늘이라는 神話論的 상징도, 은총과 같은 관념도 제거되었다. 은총이란 인간의 자율적인 활동밖에서 오는 행위인데 그 때문에 은총은 Kant에 게 있어서는 타율적인 것의 표현이 되었다. 왜냐하면 은총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므로 인간의 자율적인 힘을 잘라내기 때문이다. 그 때 남는 것은 Kant의 말을 빌리면 理性宗教(Reasonable Religion)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이성종교에 있어서도 기도도 역시 제거되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을 초월한 것에다

15) 여호수아 10: 12 ff.

16) E. M. Burns and P. L. Ralph. *World Civiliza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1964 p. 42.

17) Rousseau는 “理性과만 상의하고 진리만을 말한다. (조종자(Le Persifleur))”

18) J. Bronowski and B. Mazlish. *op. cit.* pp. 326-327. 원죄같은 것은 없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타락된 것이 아니라 폭군과, 음모를 꾸미는 제사장들에게 의한 잔인성으로 말미암아 이끌려지는데 만약 인간 본성이 이성과 자연의 본성의 인도를 따른다면 자유롭고 사회의 안전성이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E. M. Burns and P. L. Ralph *World Civilization*)

인간을 관제 시키기 때문이다. 이 관제는 계몽주의 사람들에게 강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만일 어느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놀라서 제 정신으로 돌아 온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Kant는 말했다. 세계를 통재하고 있는 인간, 理性의 힘을 지닌 자율적인 인간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품위있는 행위가 못 된다고 Kant는 느끼고 있었다.

이리하여 은총과 마찬가지로 유한성, 절망, 이성종교, 다시 말해서 현실 곁에 있으면서 세계를 창조한 다음에는 세계에 너무 간섭하지 않는 초월적 신에 대한 신앙 뿐이었다¹⁹⁾

1624년 Lord Herbert of Cherbury에 의하여 창시된 Deism은 대부분의 계몽주의 철학자들 사상이었다.

프랑스에서의 Voltaire, Didrot, Rousseau, 영국에서의 Alexander Pope, Lord Bolingbroke, Lord Shaftbury, 미국에서의 Thamas Paine, Benjamin Franklin, Thomas Jefferson 등은 Deist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이 Deist들의 目的은 勿論 기독교를 파괴 시키는데 주력을 했다가 보다, 기독교를 대신하여 보다 단순하고 보다 自然的인 宗教를 믿는 것이었다.²⁰⁾

그러므로 이 Deism의 새로운 종교의 근본적 경향은 ①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自然法(Natural Law)을 규정하고 우주를 창조한 唯一神의 존재를 인정하고 ② 그러나, 그 神은 이 세계에서 인간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기독교의 神처럼 번덕스럽지 않다. ③ 기도, 성찬 의식은 단지 무용한 것이다. 神은 감언으로 속여지거나 자연법을 재쳐놓고 뇌물을 받아서 특수한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④ 인간은 善을 택하고 惡을 피할 意志의 自由를 부여 받았다. 구원을 받고 저주를 받는 예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상급과 벌을 지상에서 개인의 행위에 의하여서만 결정되어 진다는 것 등이다.

Deism은 하나의 神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이 神은 이미 인간과 세계를 직접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神은 우주를 창조했고 행동속에 두었으며, 자신은 배후에 물러서 있으며 태초에 그가 세웠던 규범들은 우주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것을 다스렸으며, 이 법은 합리적이며 불변하는 것이어서 인간은 그 법들을 발견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확실히 이 종교는 神이 원초적으로 造物主(The Great Architect)며 第一原因者(The first cause), 原動力者(The Prime Mover)였다. 그들은 神의 實在로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唯一한 방법으로 삼았었다.²¹⁾

그러나 이렇게 Deism에 의하여 왜곡되고 거부되어진 기독교 사상은 합리주의적 思想家에 의하여 완전히 理性下에 놓여지게 되었다.

Voltaire는 神이 창조한 세계는 Newton이 발견한 그런 자연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그

19) P. Tillich.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송기득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출판부: 1980. p. 63

20) E. M. Burns and P. L. Ralph, *op. cit.*, P. 48.

21) 18C 초엽에는 進化論의 理論이 아직 발달되지 못하였다.

神은 인간의 기도에 응하거나 기적으로써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 神이며 초자연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自然的인 존재였다.

Locke는 신앙을 理性에 완전히 종속 시켰다.²²⁾ 그는 기독교적 계시를 시인하면서도 계시가 理性보다 더 높은 심판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거부되어야 하며, 또 계시는 理性이 주는 바와 같이 확실한 지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³⁾

Locke의 영향을 받았던 J. Toland²⁴⁾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가정한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신비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비,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교리는 理性이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理性있는 神이 계시를 내리는 것이라면 그 目的이 사람이 깨치는데 있을 것이며 수수께끼로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데 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⁵⁾

a) 合理主義

近代 形而上學의 창시자로서 뿐만 아니라 科學에 대한 독창적 공헌으로 저명한 Descartes의 그의 철학적 方法은 合理主義²⁶⁾ 사상에 강력한 자극을 주었다. 그의 방법은 회의를 通하여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야말로 근본적으로 17C의 물리학의 과학적 절차였으며 거기에는 회의가 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가능한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확증될 때까지는 무엇이든지 참(진리)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를 영국에서 확립시킨 사람이 Locke였다. 그는 理性과 일치하는 계시는 받아들여져야만 한다고 언명하였지만 理性의 명석한 증거와 충돌하는 계시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Locke는 “神이 계시하는 것은 무엇이나 확실히 진실이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신앙(즉 그것이 이성이 충돌한다손치더라도)의 고유한 대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神의 계시인지 아닌지는 理性이 판단해야만 한다”²⁷⁾고 설명하여 계시의 확실성을 理性의 바탕에 두었다.

Hobbes는 세계는 물체와 그의 다양한 운동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물리적인 필연성의 因果律에 지배되고 있으며 그것은 다만 자연계 뿐만 아니라 人間 및 人間社會 一體의 현상에 기계적인 自然論을 세워서 근세의 啓蒙的 合理主義체계를 수립한 최초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²⁸⁾ 인간은 순수한 물리적 기계적인 必然성에 지배되어 있는고로 영혼도 물질에 다름이 없고 양심도

22) Voltaire는 이성만이 인간이 따라야 할 유일한 믿음직한 방법이라 보았다. 결국 무엇이 진실인가는 이성에 의해서 판가름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23) J. B. Bury, *op. cit.*, p110

24) Jhon Toland (1669-1722) 영국의 사상가. 理神論者로서 Locke의 영향을 받고 Christianity not Mysterious (96)을 낸

25) J. B. Bury, *op. cit.*, p111

26) 계몽주의의 inspiration의 일부는 Descartes, Spinoza, Hobbes의 rationalism에 있고 그 운동의 사실적인 근본은 그 Isaac Newton과 John Loke였다.

27) J. Bronowski and B. Mazlish, *op. B. Mazlish, op. cit.*, p 260

28) Hobbes는 그 눈에 안보이는 힘은 두려워 하거나 우러러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신의 근원이라고한 그의말에서 그의 진정한 종교관을 엿볼 수 있다. (J. B. Bury, *op. cit.*, p. 109.

신체의 어떤 부분에 의한 운동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²⁹⁾

Spinoza는 성서를 다른 서적과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칙을 내세워 이것이 理神論者들의 근본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³⁰⁾

그리하여 Thomas Ulstone같은 이는 기적이 믿을 수 없다든지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논법을 쓰지 않고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主要 기적들을 검토하고 理性으로 그 기적들이 不合理함을 들추어내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조롱하였다. 그는 베테스다 못의 기적을 설명하며 神이 자비를 베푸는 방도로서는 기묘하고 우스꽝스런 일이다. 인류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라 풀이하여 마치 서로 다투는 모양을 보려고 개의 무리에게 뼈다귀를 던지는거나 서로 빼앗는 꼴을 보려고 아이들의 무리에게 돈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비꼬았으며, 병자를 고친 기적은 그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한갓 꾸며낸 이야기로만 생각하였다. 그는 福音書를 한갓 무식한 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Renaissance 이후로 사상가들의 일반적 경향은 종교적 세계와 理性的 세계를 별개의 세계로 보아 길으로는 종교적 신조를 받아들이지마는 실제로는 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verroes는 물질의 영원성과 영혼불멸을 부정하며 哲學的 眞理와 宗教的 眞理는 서로 독립하고 서로 모순하는 두개의 진리가 공존한다는 二重眞理說³¹⁾을 내세움으로서 理性的 바탕에서 宗教的 眞理를 비판케 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Montaigne의 사상에서 볼 수 있다. 그의 Essay(수상록)은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정통적 Catholic의 신앙을 표명한 곳이 많으며 영혼불멸에 대해서는 그는 교리가 가장 보편적이므로 승인되고 가장 유리하게 신봉된 교리이기는 하나 우리의 理性이 세운 가장 박약한 교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과학적 철학사상은 인간의 지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청소하는데 있었다. 인간은 그 자연적 능력의 사용만으로 충분하였으며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Locke는 초자연적 방법에 반대하였으며 자연적인 방법을 옹호하였다.

b) 自然法 思想

近世 自然法 사상은 계몽사상의 社會哲學이라 할 수 있다. 계몽사상 자체가 원래 古代에서 堯원하는 구자연법사상을 최고로 상승시킨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自然法은 Stoa사상에서 나타난 것인데 Stoa사상은 理性에 중점을 두고 모든 것은 理性에 기초한 엄연한 자연법칙에 의하여 지배되며 그리고 이 자연법칙은 영구불변인 보편 타당성을 가진 道德律이라고 하

29) 최문환, 근대사회사상사, 서울, 대성출판사. 1949. pp. 117-118.

30) J. B. Bury, *op. Cit.*, p. 114.

31) 우주의 창조. 예수의 부활, 영혼불멸설을 종교적 입장에서 진리일지 모르나 이성적 입장에서 허위다.

였다.³²⁾ 自然法은 人爲的이거나 어떤 특정한 인간의 권위자에 의하여 정립되지 않았으며 또한 개인 이해 관계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옳이며, 정당하고, 또 정의인 고로 타당한 규범이라고 생각하였다. 實定法은 본질상 강제적 규범이며 자연법은 自然, 神, 理性인 까닭에 하등 강제적 이 아니며 실정법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 상대적 규범인 반면 자연법은 自明的 영구불변적인 규범이라고 하였다.

Locke는 자연상태는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을 갖고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理性이야 말로 바로 그 자연법이며 理性이외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전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참여의 자격기준은 재산의 소유가 아니라 理性의 소유라고 Locke는 강조하였다.

人間은 사회내에 생활하며 인간사회는 自然이 가장 직접적이며 정당한 명령을 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체계는 자연철학과 自然神敎와의 상호관련하여 계몽사상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 사상은 귀족 승려의 신분적 특권, 기타 guild的 독점등을 배제하였고 중래의 중세적 세계관에 대한 과감한 투쟁의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Ideologie가 근세 자연법 사상이라 할 수 있다.³³⁾

III. 구원으로서의 사회개혁

啓蒙主義 哲學者들은 社會를 改革함으로서 인간은 낙원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社會的 動物(Social Animal)로서 오히려 사회의 피조물로 보았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은 잘 정돈되어 있고 잘 계획된 완전하고 조화있는 사회적 환경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³⁴⁾

18C에 철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이며 잠재적으로 옳하다고 선언하고 현재의 암흑에서부터 인간을 인도할 방법은 인간의 理性과 善意志(Good-Will)에 호소함에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틀린 것을 보여라 그러면 그것을 피할 것이며, 옳은 것을 보여라 그것을 따를 것이니라 하였다. 그리하여, 철학자들은 인류를 교육하기 위해 준비 하였다.

비록 18C는 20C가 자랑할 수 있는 Media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성공하여 그들의 사상을 사회의 모든 계층에 심어주어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의 모든 많은 사람을 교육시켰다. 그들은 drama, Comedy³⁵⁾, 歷史,³⁶⁾ 새로운 과학에 관한 책, 小説, 詩로써 자신들의 견

32) 최문환. *op. cit.*, pp. 126 - 127

33) *Ibid.*

34) Rousseau는 악의 원인을 원죄 혹은 신에 있다고 보지않고 그대신 차라리 사회에 있다고 해 놓음으로써 악의 문제를 세속화시켰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회의 개량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새로운 시야를 여는데 중대한 제 1보를 내디뎠다.

35) 계몽사상가들의 과업은 실제로 이중이었다. 즉 그들은 낡은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또 새로운 체제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련의 낡은 신념체제를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를 넓은 대중에게 보급하였고, 또한 이런 철학자들의 대열에 합세한 설교자들의 설교에 의하여 보급되었고, 또한 Denis Diderot³⁷⁾의 편집하에 만들어진 "Encyclopédie"에 철학자들은 기고하여 보급하였다. 이런 수단을 통하여 계몽되었으며 대중의 계몽이 완전의 길로 인간과 사회를 이끄는 先行的 條件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육을 重視하게 되었다. 그들의 교육적인 programme내용을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은 그 자신의 개인과 세계의 고통 원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졌으며 둘째는, 이들 고통 원인을 만약 인류가 理性으로 하여금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마치 효소가 발효하듯이 침투하게 하면 제거될 수 있으며 세째는, 이런 원인들이 제거 되어지고 인류가 理性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행복과 완전한 세상 즉 낙원이 도래함을 확신한다. 이 사상은 놀랄정도로 단순하며 18C는 과도한 낙천적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原罪(Original Sin)³⁸⁾를 믿지 않았으며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원죄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심 하였다. 인간은 주어진 고유한 기능으로 진실로 선한 것을 행할 의지와 행위의 가능성을 가졌다고 확신하였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거나 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 악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럼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들의 대답은 지배층의 소수자, 즉 지배계급들이 인간과 사회에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³⁹⁾ 구조나 제도의 잘못이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제도와 관습을 개혁함으로써 인간의 현세적 존재를 改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Voltaire는 현존하는 세계가 결코 가능한 모든 세계중의 최선의 세계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좀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⁰⁾

당시 프랑스에서는 절대권력(Absolute Power)을 지녔던 무능한 전제군주와 특권을 지닌 무용한 귀족, Roman Catholic의 승려 계급들이 사회의 고통의 책임자라고 주장하였다.⁴¹⁾ 이런

36) Voltaire는 계몽주의 눈을 가지고 과거를 보았다. 과거는 구속받지 못한 고통(Unredeemed disaster) 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쁜시대와 좋은 시대가 있었는데 좋은시대는 고전적인 Greece, Roma 시대와 Renaissance시대와 Louis XIV. 즉 태양왕(The Sun King)시대였으며 당시 사회는이성에 의하여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나쁜 시대는 기독교 중세시대로서 이 때는 理性의 암흑시대였기 때문이다.

Voltaire와 그의 사상을 따랐던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성(Human Reason)이 과학에 접촉하지 않았던 민족 즉 Persia, Indie, 中國, America 대륙에 살고 있던 야만인들은 기독교의 침울한 영향은 경험한 적이 없는 민족들로서 과학에 접촉한 민족들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었다고 하였다.

37) Goethe는 Diderot소설 "라보의 조카(Le neveu de Rameau, 1821)"를 읽고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두뇌를 가진 분"이라고 격찬하였다. 프랑스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역사작과전서(L'Encyclopédie, 25, Vol : 1750-1772)의 목적은 단지 일정한 양의 정보를 전달할 뿐만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즉 일반적인 사고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 Diderot가 말했다듯이 "이 책은 곧 사람들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혁명을 불러 일으킬"화약고가 되었다.

38) Rousseau의 원죄관은 더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하게 부정하고 반대 증명까지 하고자 하였다.

39) Rousseau는 인간은 나쁜것이 아니라 단지 나쁜 통치를 받고 있다고 했다.

40) J. Bronowski and B. Mazlish. *op. cit.*, pp. 326 - 327

41) 신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앞선다고 하는 중세 Catholic의 신조는 "신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한 구실이다."할 정도로 당시의 성직자들은 타락했다. (Rousseau, N. Héloiser)

절대군주, 귀족, 승려들의 제도는 그 세기를 통털어서 그들외에 인구를 노예로 만들었거나 노예나 무지에 잡아두게 되었으며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속에 그들은 그냥 방치하게 되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첫 단계로서 모든 면에서 기독교를 불신하는 것이었다. 그대신 그들은 理性의 작용이 이 일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교회의 영향과 능력을 중식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격렬한 革命을 원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들은 꽤 保守的이었으며 중간계층(Members of the middle class)으로서 혁명적인 대 변동으로 그들의 안락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아니하였다. 단지 理性으로 인하여 사회가 개혁되어 변하여지기만 하면 게으르고 기생적인 귀족들과 근면하고 지적인 중간계층과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가지 불평등이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가르침의 결과는 그들이 의도하는 바와는 아주 달랐다. 이들의 가르침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프랑스혁명의 非合理的인 파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혁명기간 동안 전 사회는 파국적인 지진처럼 근본까지 흔들렸고 국왕은 그 가족과 더불어 살해되었으며 귀족들은 그들의 칭호와 특권과 소유가 상실되었으며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생명마저 상실되었다.

옛날에 권세있던 교회들은 그 권력을 다 잃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反基督教國家 權力에 복종하여야 되었다.

理性의 神性化(Godness of Reason)가 공식적인 것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파괴는 理性에 의해서도 그치지 않았다. 부유한 중간계층의 사람들도 그들이 가졌던 특권을 상실하였으며 피와 파괴의 혁명적 격렬은 하층계급(lower classes)에서도 일어났다.

이런 파괴적 결과는 철학자들의 사회변혁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허망함을 보여 주었다. 철학자들은 인류의 이런 희망을 옛날 Adam, Eve의 낙원과 같은 것은 거짓된 기초여서 理性的 인간은 그 자신이 神과 같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神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렇게 함이 인생의 완전함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기독교 신앙과 그 특성을 잃고 있었으며 神없는 生活(Life-without-God)은 진실한 생활과 전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생활태도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또한 啓蒙主義는 현대 사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기독교가 거부된 이래 Europe은 결코 인간이 만든 천국을 건설할 시도를 중지한 적이 없다. 이러한 시도는 항상 神이 거부되었고 Humanism이 동반되었다. Voltarie, Rousseau같은 철학자들이 약속하였고 Danton, Marat, Robespierre같은 혁명가들이 프랑스에서 구체제(Old regime)의 몰락위에 구원된 사회(The redeemed Society)를 건설하려고 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Marx와 Engels와 같은 共產主義자들이 Utopia를 선전하고 Lenin, Trotsky, Stalin과 같은 혁명적인 Bolsheviks들이 제공하는 사회(Classless Society)를 건설하려고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Hitler, Mussolin, 오늘날 우리 세대의 毛擇東主義者들에 의하여 피하여졌던 혁명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현대의 좌익 행동자들과 심지어는 民主社會主義者들과 그들의 도

당에 의하여 약속된 이들 Utopians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사실 그들은 合理主義者로 확신하며 그들의 理性이 그들을 진실로 인도할 것을 믿었다.

Locke는 인간의 마음은 출생시는 백지(tabula rasa)와 같다고 하였다.⁴²⁾ 성격이 미비한 백지와 같은 존재이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종이였다. 그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모두는 똑같은 정신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졌다. Locke는 주장하기를 遺傳的 要因(Hereditary factor)이나 先天的인 思想(Inborn Idea)이나 혹은 性向(Propensity)이 있을 수 없다. 출생시 인간 마음은 中性的인 實在物(Neutral entity)이며 지혜롭게도 우둔하게도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악간의 내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나? Locke는 말하기를 즉 경험부터이거나 환경에 의하여 준비되어진 자극에서이다. 이 마음 형성조건(Mind-Shaping-Environment)의 중요한 근거는 좋은 환경과 적당한 교육이다.

인간 마음에 관한 Locke의 사상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이론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믿고 싶어하던 것을 위하여 과학적인 증거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였고 인간의 타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거짓이며 또한 인간은 대단히 쉽게 개량될 수 있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에 불과하므로(Nothing but the product of his environment) 인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동의 유일한 것은 그에게 적당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계획은 우리가 보아 온 과학자들은 자연을 개선하였고 철학자들은 사회의 개혁을 가져왔다. 그들 사이에 드디어 완전한 것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도로 인류가 개선할 이런 질적인 환경을 곧 마련하게 되었다.

Locke의 영향은 또한 교육이론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어린이 양육과 보육에서 무한정한 가능성이 기대되어졌으며, 계몽주의 철학자 Helvétius와 19C 사회개혁가 Charles Fourier등이 Locke의 영향을 받았다. Helvétius는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 천재이며 만약에 어떤 사람은 둔재로 되고 다른 사람은 위대한 슬기를 가졌다면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ies)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⁴³⁾ Fourier는 이 사상을 좇아서 France에 태어날 어린아이는 Newton과 Shakespeare를 결합한 것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만약 인간이

42)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90.

그위에 새로운 관념이 쓰여지고 기입될 수 있게 되었으며 새인간은 無에서 시작하여 자기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J. Bronowski and B. Mazlish. *op. cit.*, p. 261)

43) Helvetius는 인간이란 태어날적부터 선하거나 악한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경험에 따라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 인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이고 그 사회의 법률이다. 그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바보는 있지만 악인이 없는 사회"다. 여기서 그의 교육론이 전개된다. 인간은 환경과 교육의 산물인데 지금 인간은 악인이 되도록 교육받고 있다. 그 악인이 되는 환경과 교육이 종교다. 종교인들은 신의 영원성을 설교하지만 진보다 가변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신의 모습이나 천국의 모습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한다. 종교는 현세를 악이라 하고 천국을 신성시 하면서 현세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내세를 위해 포기시킨다.

단지 그의 환경의 산물이라면 같은 환경이면 같은 인간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Helvétius와 Fourier의 견해는 절대적으로 정당하며 勿論 Locke도 옳으며 결과는 社會改革家와 社會計劃家(Social planner)의 지혜에 달려있을 뿐이다.

Locke의 기본적인 가정은 많은 현대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나 교육이론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가정 즉 “인간은 환경의 산물(Man in the product of his environment)”이므로 그의 생활과 성격은 환경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되어 진다.

Locke는 社會結定論(Social determinism)의 鼻祖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그의 사상이 너무 확고이 굳어져 있으므로 현대인은 그들을 좌절시킨 사회를 파괴하고 도전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방법까지도 동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God's Image)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을 환경의 단순한 피조물로 환원시킨 심리학의 의도였다. 그리하여 믿을 수 없는 논리로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구할 수 있는 꼭 같은 환경의 산물로 주장한다.

IV. 結 語

啓蒙思想은 나라에 따라 多少 理論과 성격에 차이가 있으나 그 기초는 오로지 人間 理性的 能力에 全的으로 신뢰하여 人間 및 세계를 모두 合法的인 질서에 의하여 理解하고자 한다.⁴⁴⁾

啓蒙思想은 理性에만 眞理를 인정하고 “非理性的”인 것은 “不合理”한 것이라고 파기해 버렸다. 理性이 최고의 심판관이었다.

中世에 있어서의 “攝理”思想이나 운명의 역사관은 물러가고 역사의식에 있어서 進歩思想이 指導理念으로 되어 인류는 완전을 향하여 무한한 進歩, 발전한다는 것이었다.⁴⁵⁾ 理性, 人間의 啓蒙으로서 無知와 편견이 제거되면 인류사회는 완전화(完全化) 된다는 역사관의 정치적 실천이 France 大革命이었으며, 思想的으로 이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 英國의 功利主義(Utilitarianism), France의 實證主義(Positivism)이라 하겠다.⁴⁶⁾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寶物들을 즉, 可能性을 나타내도록 명령을 받았다. 예배하는 피조물로서, 그의 주를 찬양하기 爲한 피조물로서 자신에게 얻어진 모든 것을 세대가 이어짐에 따라 더욱 더 철저히 준비하여 그(He)이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이를 망각하고 지식의 자랑으로 文化를 건립하였으나 그들 文化

44) “理性의 자기신뢰(Selbst-Vertrauen der Vernunft)”는 모든 시대적 국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조였다.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심이 인간의 영성(靈性)을 거부하고 “너 자신의 悟性에 봉사하는 용기를 가져라”는 Slogan하에 모든 대상에 理性의 타당성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45) 그리하여 progress라는 단어는 18C에 있어서 유행어처럼 사용되어졌는데 이 진보의 계속은 인간 이성의 올바른 사용에 의하여 확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완성(perfection of man and his society)과 그리고 신 낙원의 건설로 지상에서의 천국으로 인도 한다는 것이었다.

46) 최문환, *Ibid.*, p. 157.

의 상징이었던 바벨탑은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혼잡된 사회를 맛보았을 뿐이다.

啓蒙主義이후로 인간에게 숨겨진 이성을 깨내어 갈고 닦아 여러가지 지식의 축적과 그 發露로 文化의 극치를 이루었으나 몰락의 위기에 당도하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사회의 피조물로 인식되어 사회개혁으로 인간을 구원 할 수 있다는 망상은 많은 Ideologie 사회를 낳게 하였으며 끊임없는 革命을 낳게 하였다.

Locke와 Rousseau의 社會契約論(Social contract)으로 확립된 主權在民 思想은⁴⁷⁾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리게 하였으며 계약에 의한 統治權⁴⁸⁾은 主權의 行事的 造作과 執權을 爲한 부정과 억압을 초래하였으며 모든 수단으로 인한 국민의 誤導는 국민과 政府間의 不信과 괴리감을 조장하여 사회를 혼잡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통치자는 공복(Servant)으로, 대표자로, 하나님의 vice regent로 하나님의 法(The law of God)에 끊임없이 복종해야 한다.

20C 現代人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 理性的 人間 理性은 인간에 內在하는 보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보물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것은 멸망을 自招할 뿐 인간 역사의 끝막음이 될 것이다.

47) Locke는 일종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Locke의 사상은 18C와 더불어 끝나지 않고 현대 정치, 사회 사상에 강하게 작용하여 Christian조차도 그의 결론에 아무런 비평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주권재민 사상은 “피통치자의 동의(The Consent of the governed)”에서 그들의 정당한 권력을 끌어낸다는 것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다.

48) 조물주에 속한 권리(Rights and Authority)를 피조물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인간들 사이에 시민권(Civil Authority)을 세운이도 하나님이시며 정부도 통치력이 그이(He)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틀린 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참 고 문 헌

박 윤선 성경주석 12판. 1980.
 金 敬洙 近代政治史 서울:陽文社. 1955.
 申 相楚 루 소 서울:靑山文化社. 1974.
 崔 文煥 近代社會思想史 서울:大成出版社. 1949
 李 炳柱等 世界文化史 서울:一潮閣. 1977
 韓 相範 近代思想史 서울·正音社. 1976
 세계사상대전집 Vol. 8. 23. 34. 서울:大洋書籍. 1972
 Bronowski, J. and Mazlish, B. 西洋의 知的 傳統, 車 河淳譯, 서울:弘盛社. 1980.
 Bury, J. B. 思想의 自由와 歷史, 梁秉祐譯, 서울:박영사. 1978.
 Dumoring, Meinlich. 近代思想의 批判. 김창수역, 서울:甲辰文化社. 1958.
 Maritain, J. 人間과 國家. 韓庸熙譯 서울:카톨릭출판사. 1978.
 Kelsen, H. 民主政治의 哲學. 韓庸熙譯 서울:大文出版社. 1970.
 Tillich, P. 프로테스탄트 思想史. 宋基得譯. 서울:한국신학연구소출판부. 1980.
Encyclopaedia Britannica, 15th, 1980
 Burns, E. M. and Ralph, P. L. *World Civilization*, New York. W. W. Nolton & Company. 1964.
 Locke. J.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 Grand Rapids, Michigan. 1978.
 Coulson, C. A. *Science & Christian B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acker, J. I.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Inter-Varsity press London. 1970.

Aggression의 本質考察

박 종 칠*

◇ 목 차 ◇

1. 序論
2. 天性으로서의 Aggression
3. 後天性으로서의 Aggression
4. 文化에 對한 Aggression
5. 신비의 Aggression
6. 人間 意志의 Aggression
7. 原罪로 부터 오는 Aggression
8. 나쁜 양심에서 오는 Aggression
9. 自殺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Aggression
10. Aggression이 存在의 先條件인가 아닌가?
11. 神學的인 主張들
12. 信者의 임무

1 序 論

최근에 나는 목회 경험에서 이상한 한 기류를 發見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말씀 自體에 對한 적개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찌서 信者들이 이런 Aggression(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일까? 물론 心理學을 공부하는 者들이 이 主題에 대해 淸급한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성경적 觀點에서 이것을 淸급한 것을 淸처럼 볼 수 없었다. 그런데 W. Pannenberg는 그의 論文인 "Aggression과 罪에 관한 神學敎理"¹⁾에서 全혀 기독교 敎리를 부정하는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 그가 논쟁하는 것은 Aggression은 기독교의 原罪敎리와 같은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억누를 때 結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原罪敎리와 그것에서 派生되는 罪책감을 제거한다면 Aggression도 제거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論理가 엘리트라고 자칭하는 大學生 뿐만 아니라 젊은 기독교청년들에게서 나오는 見

* 도서관장

1) Wolfhart Pannenberg, "Aggression und die Theologische Lehre von den Sünde",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21 (July 1977) : 164, 172